

한문소설 〈홍경래전〉 연구

黃 涓 江*

I. 서 언

II. 홍경래에 관한 서사 작품

III. 〈홍경래의 난〉과 〈홍경래전〉

1) 〈홍경래의 난〉의 전말

2) 〈홍경래전〉의 문학 형상

IV. 결 언

I. 서 언

우리 고전소설에는 역사적 실존인물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꽤 있다. 그 가운데는 역사적 기술물, 이를테면 〈실록〉이나 〈실기〉류로 볼 것인지를, 아니면 〈소설〉 작품으로 간주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없지 않다. 비단 독자만이 겪는 곤혹이 아니라, 정작 작품을 쓴 작가 자신 실기와 소설을 가려서 썼던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경우를 더러 본다. 작가가 불인, 이른바 고소설의 제명에 〈○○○실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의심없이 작가 자신 그것을 ‘실기’ 즉 사실의 기록으로 생각하고 기술하였다는 심증을 갖게 한다.

그러나, 작가가 〈실기〉로 명명했다거나, 또 그렇게 생각하고 기술했다는 사실이 곧 그것의 〈실기〉——단순한 사실의 재현을 의미하는 기록물이라는 확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설〉과 실기를 구별하는 데는 전혀 별개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역사적 현실 재현을 의미하는 〈실기〉류에서는 소설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일관된 주제의식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리고 주제로 향한 사건들의 유기적 구성을 볼 수 없으며, 인물 성격화를 위한 의도적인 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겠다. 〈실기〉에서는 사실이 중요할 뿐, 거기에 나타나는 사건이나 인물이 하필 전형화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전형화를 위한 문학의 기법은 〈실기〉의 기술자에게는 마치 사실의 조작이거나 과장 혹은 왜곡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주의적인, 유능한 작가의 경우, 그의 문학 형상화 노력은 〈사실〉의 과장이나 왜곡이기는 고사하고, 〈실기〉 이상으로 본질적 국면에서 생동하는 〈사실〉을 재현해 낼 수 있다고 하겠다.

소설이 다루는 〈사실〉이 아무리 역사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소설은 다만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재현하는 데 그칠 수는 없다. 작가는 무엇보다 문학화를 위해, 또 문학화에 앞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작가나름의 관점을 갖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작가나름의 관점〉이란 역사가의, 이른바 〈사관〉과는 다르다. 작가로 하여금 작품 소재로서 역사적 사실을

* 檀國大, 國文學 專攻.

해석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제를 설정하여, 하나의 <역사적 현실>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재구성한 <역사적 현실>이란 어쩌면 작자의 관념 속에만 있는, 비역사적인 <현실>이라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작가의 이와 같은 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역사 기술>이 엄두도 못내는, 역사적 사건의 진실——내면적 진실을 감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소설의 세계라고 하겠다.

본고는 조선왕조의 봉건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한 때는 민중의 호응을 얻어 대세를 잡은 듯하였으나, 결국은 역부족으로 좌절의 비운을 맞본 실존인물 홍경래를 문학화한 한문본 <홍경래전>을 대상으로 하여, 역사적 사건 및 인물을 작품화하는 데 주요한 계기가 된 작가의식의 문제를 들어 <홍경래전>의 사회성과 문학성의 관련양상을 고찰하려고 한다.

II. 홍경래에 관한 서사 작품

홍경래를 다룬 서사 작품은 소설류와 가사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래에서 그 개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 소 설 :

1) 신미록(辛未錄)⁽¹⁾ : 경판본, 국문, 작자 미상. 신유 2월 일 홍수동 신판.

순조 11년(신미, 1911) 홍경래의 모사(謀事)로부터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18일의 봉기, 가산(嘉山)을 비롯한 8개 지역의 점거, 안주성 공격의 실패, 정주성에서의 농성, 관군과의 수 차례 접전, 정주성의 폭파로 패퇴, 홍경래의 전사로 <난(亂)>이 평정되는 순조 12년 4월 19일까지의 <신미란>의 전말을 기술하였다. 관변측 실기라는 성격이 짙다. <신미란>의 성격을 “황야우민이 성명하신 덕택을 아지 못하고 외람히 천의를 거스르니 어찌 차롭지 아니리오.”⁽²⁾라고 한 데서 볼 수 있듯이 <황야우민의 천의를 거스린 외람된 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홍경래의 군사를 ‘무뢰지배(無賴之輩)’,⁽³⁾ ‘도적’, ‘적병’, ‘적당’ 등으로 부르고, 관군에 대하여는 단순히 ‘군사’, ‘군’이라 부르면서 관군 위주의 무용담에 비중을 두고 있는 데서 작자의 의식이 보다 관군쪽에 소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홍경래의 최후를 다룬 대목——“경래 형세 위급하여 도망코자 하더니 왕재혁이 갈 길을 막고 한 창으로 경래를 찌르니 경래 말에서 떨어지거늘 왕재혁이 그 머리를 베어 들고 순무영으로 바치니...(중략)...머리를 함에 담아 경사로 보내니

(1) 張德順·崔珍源 校注『洪吉童傳·壬辰錄·辛未錄·朴氏夫人傳·林慶業傳』, (韓國古典文學大系 1), 敎文社, 서울, 1984, pp. 429~487(이하「辛未錄」이라 일컬음.)

(2) Ibid., p. 431.

(3) Ibid.

라.”⁽⁴⁾에서 홍경래의 죽음은 역도가 당연히 당하는 패가망신의 처참한 죽음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려져 있다. 여기서는 그의 목을 베인 왕재혁의 용맹이 돋보일 뿐이다.

2) **홍경래 실기**(洪景來實記)⁽⁵⁾: 상하 2권, 신활자본, 국문, 남악주인(南岳主人: 최창선?) 찬. 1917년 7월 10일 신문관 간, 장희소설(총 17회), 서(찬자 자신의 찬술 동기를 밝힘.).

작자는 〈서〉에서 홍경래 사건에 대한 작자 나름의 태도를 표명하고, 작품 제작의 동기를 명시하고 있다. 즉 “그가 다만 시세를 만나지 못하였고 시세를 만들기에 힘들임이 좀 부족하고 시세를 기다림에 성미가 좀 조급한 일 한 가지가 그의 몸을 망하고 아울러 우리 전배의 바라고 기리는 바를 망케 하였을 따름이로다.”⁽⁶⁾

〈홍경래 난〉의 목적을 〈우리 전체의 바라고 기다리는 바〉로서 긍정하면서, 그것의 실패를 〈시세〉——객관적 여건의 미숙에 돌리고 있다. 〈우리 전체가 바라고 기다리는 바〉 홍경래 난의 목적에 대하여 작자는 “대의를 천하에 펴고 공리를 일세에 밝히는 것”⁽⁷⁾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본 실기 찬술의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솔흐다 절등호 인물과 탁월호 사업은 반드시 절등호 문장과 탁월호 평론을 어더 비로소 만세에 필전 하는 거리가 되나니 칼로 넘어진 우리 홍장군을 붓으로 일으키는 이가 그 누구군.⁽⁸⁾

본 실기를 찬술하게 된 작자의 동기는 대의와 공리를 밝히려고 붓기하였으나, 시세를 만나지 못하여 중도에 좌절한 홍경래를 비운의 영웅으로 보고, 그의 사적을 만세에 전하려고 한 데 있다. 그리하여 작자는 홍경래에 관한 여러 실기와 구비전승 등을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여 본 실기를 찬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도 미진하였는지, “洪將軍의 實地事蹟을 考證할 만호 文書記錄을 藏置하셨거나 或 그 所存處를 짐작하시는 君子는 將軍을 爲하야 實錄을 編纂코저 하는 新文館內 南岳主人에게로 紹介하야 주시기 深願호오며 또 將軍에 關호 口碑傳說을 錄送호시면 千古傑人의 眞面目을 闡發호기에 大幸이겠사외다.”⁽⁹⁾라 당부의 글을 붙이고 있다. 따라서 본 실기는 작자 자신 자료의 제약으로 불만스러운 작품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다음을 기약하고 있다 하겠다.

본 실기는 홍경래의 일대기라는 성격이 짙다. 즉 출생으로부터 거사, 그리고 패전까지를 다루고 있다(홍경래의 종말에 대하여 “도망하야 잡지 못호고”⁽¹⁰⁾라고 써서 여운을 남기고 있다). 출생, 성장, 거사를 다룸에 있어서 비상한 인물로서 홍경래를 묘사하고 미화하고 있으나, 영웅으로서의

(4) Ibid., pp. 485~487.

(5) 仁川大 民族文化研究所 『舊活字本古小説全集』, 17, 銀河出版社, 서울, 1983, pp. 1~158(이하 「洪景來實記」라 일컬음.)

(6) Ibid., p. 6.

(7) Ibid., p. 7.

(8) Ibid., p. 9f.

(9) Ibid., p. 11.

(10) Ibid., p. 156.

형상화는 전반적으로 미약하다. 전투의 추이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시종 관군 위주의 전투 소개에 그치고 있어, <서>에서 밝힌 모처럼의 작자의 의도는 충족되지 못했다. 본 실기에서는 홍경래를 ‘장군’, ‘백대 영웅’ 등으로 부르고, 그의 군사에 대하여는 ‘홍군’으로 불렀다. 거사 동기에 대한 형상화가 부족하고, 서술 위주로 되었다. 관군의 횡포 특히 무차별 살육에 관하여 관심있게 서술하고 있다.⁽¹¹⁾ 그리고 <홍경래의 난>이라는 일대 시련기를 맞은 조선의 봉건관료들 가운데서 <의>와 <불의>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형상화함에 있어 여전히 왕조사회의 규범을 받아 들이고 있다.⁽¹²⁾

본 실기는 작가의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홍경래에 관한 잡다한 자료를 접합하는 과정에서 작가의식이 동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이용한 자료의 많은 것이 관측의 기록이었던 때문인듯 홍경래를 <백대 영웅>으로서 형상화하려던 작자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품화 과정에서 관군 위주의 전투 묘사로 홍경래는 오히려 왜소화되고 만 느낌조차 있다.

3) 홍경래전(洪景來傳)⁽¹³⁾: 필사본, 한문, 작자 미상.

홍경래를, 조선왕조 후기의 사회적 비리에 항거한 비극적 영웅으로 작품화하였다. 주제의식이 뚜렷하고, 소설적 구성이 그 중 짜임새 있다. 홍의 거사 동기를 구체적 사건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그 뒤에 오는, 모든 사건의 결정적 계기가 되게 하고 있다. 사마시에 응시하여 부당하게 낙방됨으로써 조선왕조사회의 부조리에 눈뜨고, 이에 대한 개혁의지를 행동화하기에 이르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다. 등장인물은 나름대로 성격화되어 있다. 특히 주인공 홍경래는 사회병리현상을 혁신하기 위해 과감히 왕권에 도전한 민중적 영웅으로 전형화되어 있다. 그를 통해 조선왕조 후기의 병리가 여실히 폭로되고 비판되고 있다. 본 전의 작자는 홍경래의 사건을 사회개혁을 위한 의거로서 그 당위성을 작품 현실을 통해 감동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위의 두 작품이 관군 위주의 전투를 그린 데 대하여 본 전의 작자는 홍군 진영에 시점을 두고, 홍군 위주의 전투를 그리고 있는 점에서 선구적인 작자의식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전의 작자도 왕조사회의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지 조사(措辭)에 있어서는 아직 구태를 벗지 못하고, 홍군을 <적(賊)>으로, 왕사(王師)는 <관군>으로 부르고 있다.

(11) ‘홍군의 협종은 가산박천등류의 무리호비성이 만커늘 진위를 못지 아니코 티양살육이 만함으로 비변사에서 신칙하는 계하관문이 내려오니라’ (Ibid., p. 71) ‘순무중군이 포로를 자진에 분비하야 당일에 효수할서 심제이상을 다 버히라 하더니 저녁 세에 다시 심오세 이상을 다 버히라 분부하야 이에 일천구십칠명은 다 버히니(후략)’ (Ibid., p. 156)

(12) 홍군에 항거한 인물(鄭善·任聖學·韓浩運 등)을 義人으로 긍정 내지 예찬하고 洪軍에 내부한 인물(金益淳·李章謙 등)을 不義로 비판하고 있다. ‘술흐다 더 김익순과 리장겸은 당당할 중영세족으로 국은을 후히 님었고 하물며 슈트지신으로 란시를 당하야 티덕에게 무릅을 꿇어 살기를 도모하니 더 가산군슈 경시와 막천군슈 임성고에게 비하면 엇지 붓그림지 아니며 또한 통천 장교! 붓그림지 아니라 이통천 장교는 한낫 하방의 미천한 인물로도 능히 대의를 세드라 죽기를 그음하고 그 옷 사들을 판난중에 옷차 직분을 다하니 엇지 아롬답지 아니리오’ (Ibid., p. 31).

(13) 李佑成·林煥澤『李朝漢文短篇集』, 下, 一潮閣, 서울, 1982, pp. 118~161(國譯文), 366~384(原文)(이하 「傳」이라 일컬음.)

* 가사류 :

1) 정주가(定州歌)⁽¹⁴⁾ : 이인구(李麟求) 소장 『언사(諺詞)』(필사본) 소재. 국문, 총 430행, 이희현(李羲玄, 1765~1828) 작. 필사자 : 홍정유(洪鼎裕), 1863년 12월 17일(발).

홍경래 사건의 시말(기병—토평)을 다루었는데, 작자는 시종 관측에 서서 홍군을 <난적(亂賊)> 시하고 있다.

저놈들 거동보소/遊乞을 군스삼아⁽¹⁵⁾

농활성 숨은도적⁽¹⁶⁾

성상의 적장놈들/부도설 놀나고야⁽¹⁷⁾

그리하여 홍군을 ‘난병(亂兵)’이니 ‘원악(元惡)’ 등으로 부르고, 왕의 “하날갓튼 놈흔은혜”를 모르고 “통효를 다버리고/도적을 썩은 무리”로 지탄할 뿐더러 “저놈들 잡아너여/만단이나 죽이교져”⁽¹⁸⁾ 할 정도로 증오와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 정주성에 입성한 관군의 무차별 학살 장면에서 작자 자신의 홍군에 대한 증오와 복수의 감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덩쥬성의 드러가자/어린아히 계집외에/만나거든 다죽여라/이성중의 잇노눔을/옥석을 갈월소냐/칼곳회 세다괴요/창곳회고기로다⁽¹⁹⁾

그 중 참담한 학살의 광경을 작자는 오히려 통쾌한 듯한 필치로 엮어 나가고 있다. 그에게 있어 홍군은 조선의 질서에 반역한 무뢰의 도당으로 조금의 동정도 허락되어서는 안된다는 태도가 보인다. 무차별의 학살도 이들에게 당연히 찾아와야 할 토벌로서 정당시되고 있다. 그 결과로서 되찾은 <태평세월>을 왕화의 덕분으로 구가하고 있다.

성은이 판터호스/저회들 폭과하랴/농사를 적조삼하/함여유신 호오시니/일노가 광명호여/어제런가 그제런가/시화세풍호야/격양가 부르오니/곳곳이 경성경윤이/만만세지튀평이라⁽²⁰⁾

위에서 보듯 작자는 홍경래 사건의 역사적 의의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정제된 역사관의 소유자이다. 홍경래 사건의 근원적 문제는 눈 감아 버리고, 다만 기존의 봉건체제가 원상으로 회복된 것만으로 다행으로 여겨 이를 예찬하고, 이 모든 것을 봉건 군주의 덕화 소치로 감사

(14) cf. 蘇在英 「〈諺詞〉研究」(홍익어문회 『홍익어문 : 心汕文德守華甲紀念特輯』, 7, 1988, pp. 519~533)(이하 「定州歌」라 일컬음.)

(15) Ibid., p. 157.

(16) Ibid., p. 160.

(17) Ibid., p. 164.

(18) id.

(19) Ibid., p. 165.

(20) Ibid., p. 169.

하고 있다. 성은으로 하여 태평세월이 돌아왔다고 보는 왕권주의적 태도의 당연한 결과로서 홍경래의 혁명은 무가화(無價化)되고 말았다.

2) 정주승전곡(定州勝戰曲)⁽²¹⁾: 경북대학교 도서관 소장 『녀계약언(女戒略言)』(필사본) 수록, 국문, 작자 미상. 제작연대: 1811~1812(?)

작자는 정주성 전투에 직접 참전했던 관군 출신의 인물일 듯한데, 이 역시 신미란의 근본적 문제는 전혀 관심 밖에 있고, 다만 <홍경래의 난>으로 일국이 요동하였으나, 관군이 이를 토벌하여 다시금 태평이 돌아왔음을 예찬할 뿐인, 안이한 작자의 태도를 볼 수 있다. 앞의 정주가의 작자나 매 한가지로 다시 돌아온 <태평>이 과연 어떠한 <태평>인가를 문제 삼으려 하지 않는 데서 공통된다고 하겠다.

조선왕조 후기의 봉건체제가 안고 있는 병리에 과감히 도전하여 한때나마 민중의 호응을 얻어 대세를 잡았었으나, 역부족으로 관군에게 패퇴하여 마치내 좌절의 비운을 맞아야 했던 역사적 실존인물 홍경래를 비극적 영웅으로 문학 형상화하는 데 그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는 작품은 한문본 '홍경래전'이라 생각된다.

작자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홍경래와 그의 혁명에 대하여 작자 나름의 해석을 내리고, 작품의 주제를 설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왕조사회의 기성관념과는 무관하게 홍경래에 관한 그 나름의 <역사적 현실>을 재구성하여 문학적 감염물을 만듦으로써 실기류의 역사 기술물이 엄두도 못내는 역사적 사건 <홍경래의 난>의 진실을 감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전에 있어 <홍경래의 난>을 이해하는 작가의 시각——작가의 의식은 작품 형상화에 절대적인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Ⅲ. <홍경래의 난>과 <홍경래전>

1) <홍경래의 난>의 전말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 아래, 서북민에 대한 차별대우에 불평을 품어 온 홍경래(1780~1812)는 누적되어 온 비정과 거둬진 흉년으로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자 조선의 봉건체제에 반기를 들었다. 10년 동안 거사를 획책하여 온 홍경래는 우군측·이회저·김창시·홍충각·김사용·이제초 등을 포섭하여 1811년 12월 18일 평북 가산 다북동에서 기병하여 10일 사이에 가산·곽산·정주·태천·선천·철산·용천·회천 등 청북의 8읍을 점거하고, 남하의 관문인 안주성을 공격하기 위해 박천 송림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송림에서의 패전을 고비로 반군은 관군에게 밀려서 정주성으로 물러나 농성하였다. 전열을 정비한 관군은 서울의 순무중군의 지원을 받아 정주

(21) cf. 崔台鎬 「〈定州勝戰曲〉攷」(『蘭汀南廣祐博士華甲紀念論叢』, pp. 619~627). (이하 「定州勝戰曲」이라 일컬음.)

성을 둘러싸고 지구전에 들어갔다. 다음 해 1812년 1월 7일까지 약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반군은 정주를 제외한 다른 점령 지역을 차례로 탈환 당하였다. 반군은 고립무원의 정주성에서 관군과 대치하여 몇 차례 접전을 벌여 전세를 만회하려 하였으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식량난에 속출하는 이탈자로 사기는 극도로 저상하였다. 한편 반군의 끈질긴 저항으로 정주성 공략이 지연되자 관군은 고육지책으로 땅굴을 파고, 성 밑에 화약을 놓아 성곽을 폭파하여 마침내 4월 19일 정주성을 탈환하였다. 이로써 <홍경래의 난>은 거병 5개월만에 평정되었다. 홍경래·이희저는 정주성 함락시 전사하고, 홍총각·우군축 등은 포로가 되어 서울로 압송되어 처형되었다. 이 전란에서 관군 8천과 반군 3천이 대치하였는데, 사상자는 2천여명에 이른다.

2) <홍경래전>의 문학 형상

작가의의식 : 본 전의 작자는 홍경래의 거사를 반봉건의 혁명운동으로, 홍경래를 민중적 영웅으로 형상화하여, 도저히 하던 종래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극복하고, 격동적인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역사와 개인과의 교섭관계를 역동적으로 묘사하였다. 역사적 현실에 참여하는 <위대한 개인> 즉 영웅을 창조하려 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를 좌절시킨 역사적 현실의 심각성을 객관화할 수 있었다. 그 개인의 이상이 크고, 그의 결단과 실천이 역사적 당위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의 좌절은 비극적이 아닐 수 없다. 그 비극적 국면이야말로 후기 조선왕조 사회의 병리를 집약해 보여 주는 사실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본 전은 사회로 향한 사실주의적 시각을 전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주인공 <홍경래>의 영웅화 : 탄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인간의 일생을 다루는 전기 형식을 빌어 홍경래의 일대기를 썼다. 그러나 중세기적 전기소설의 관습처럼 되어 있는, 영웅에 관한 탄생의 신이적 요소는 배제되어 있다. 홍경래의 경우,

정묘 경자년간에 평안도 용강군민에 홍 아모개라는 이가 있었다. 아들을 낳아 '경래'라 하였는데, 그 윗대는 상고할 길이 없다.⁽²²⁾

출생에 관한 한 홍경래는 평범한 인물로 그려져 있다. 평범한 출생의 인간을 사회 반역의 주인공 즉 영웅으로 형상화하였다는 점에서 전기적 소설과는 구별되는, 이 소설 특유의 사실주의적 시각을 볼 수 있고, 아울러 주인공에 대한 민중적 영웅으로서의 전형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탄생의 평범에도 불구하고, 홍경래의 영웅다운 자질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 형상화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전기적 소설에서 보는 초인간적 영웅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 역시 이 소설의 사실주의적 성격을 말해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홍경래의 이른바

(22) 正廟庚子年間 平安道龍岡郡民有洪某 生子曰景來 其先未可考也 <傳, p. 366>

비상한 자질은 시종 인간적인 범주에서 다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 대목을 아래에 보인다.

어려서부터 총명준수하고 슬기와 용기가 사람에게 뛰어났다...(중략)...지각이 일찍 서고, 소견이 보통에서 뛰어나 얼마 배우지 않아서 대략 문리(文理)가 트였다. 벌써 8세 때 시를 지어서 다음 짓구가 전한다. '해압산(海鴨山)에 걸터앉아/요포강(腰浦江)에 발을 씻노라' (23)

어려서 이미 장수로서의 자질이 드러나고 있음을 그리고 있다. 즉,

항상 여러 아이들과 모여 놀 때면 스스로 대장이 되어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서 행군하고, 싸움 싸우는 모양을 지으며, 또한 둔덕이나 흙담같은 곳을 늘 뛰어오르고 넘는 등의 일을 연습하는 것이었다. (24)

소시적부터 반역의 큰 뜻이 있었던 것으로 그려 놓았다. 즉,

사략(史略)을 읽다가 '왕후 장상(王侯將相)이 어찌 따로 중자가 있느냐? 장사가 죽지 않으면 몰라도 죽게 되면 큰 이름을 드날릴 것이다.'와 같은 구절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두 번 세 번 읽고 감탄하고 찬양해 마지 않는 것이었다. 유학권은 경래가 이러한 것을 보고, 한편 그의 총명을 기뻐하면서도 한편 그 장래가 은근히 걱정되었다. 12세 때에 '송형가(送荆軻)'라는 제목의 시를 지었는데, '추풍역수 장사권(秋風易水壯士拳)/백일향양 천자두(白日咸陽天子頭)'라는 구절을 보고, 유학권은 대(對)를 잘 맞춘 것으로 칭찬하였다. 경래는 칭찬을 받고 기뻐하는 기색이 없이 한참을 묵묵히 있다가, 저는 단순한 뉘스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고 대답하였다. (25)

말하자면 그 구절은 장사의 주먹으로 천자의 머리를 갈긴다는 뜻으로 썼던 것이다. 이것을 본 유학권은 모퉁이 송연하여 다음날로 경래를 집으로 돌려보내며, 그의 아버지에게는 경래가 글재주는 비상하나, 장래가 우려된다는 뜻으로 글을 써 보냈다. 유학권은 경래의 외숙으로 상당한 학식을 가진 선비로 향리에서 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외숙의 학당을 떠나 집으로 돌아온 경래는 혼자 경사(經史)를 통독하고 시를 지었는데, 그 시에서 이미 평탄치 못할 그의 앞날이 예시되고 있으며, 왕권에 도전할 <불측한 심사>가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달이 못 별을 거느리고 하늘에 진을 치니/바람은 나뭇잎을 몰아 가을 산에서 싸우도다(月將衆星屯 碧落 風驅木落戰秋山). (26)

그는 조석으로, 뛰어 오르는 일, 검무하는 일로 일과를 삼았고, 하루에 능히 2, 3백리를 걸

(23) 景來自幼聰明俊秀 智勇過人...(中略)...如覺夙就 意思超凡 學未幾粗知文理 甫八歲作詩 有距坐海鴨山 洗足腰浦江句 (id.)

(24) 常與群兒遊 自立爲大將 率群兒 作行軍戰鬪樣 又於土垣土墩處 常習陣上超越等事(id.)

(25) 讀史略 至王侯將相事有種乎 壯士不死則已 死則舉大名等句 必再三讀而嗟歎稱賞不已 學權見其如此 一邊喜其聰悟 又一邊慮其將來之爲何如矣 至十二歲以送荆軻題作詩 有秋風易水壯士拳 白日咸陽天子頭句 學權考覽 以善對稱之 景來聞譽而無喜色 默然良久曰 小子本意 不以對句作也(id.)

(26) 傳, p. 366.

을 수 있게 되었다. 삼척 장검을 책상 머리에 세워 두고, 출입시에는 반드시 그것을 허리에 찼으며, 병서와 온갖 술서를 열독하였다.⁽²⁷⁾

경래는 대담, 쾌활하고, 의기와 증후의 마음이 있었고, 이해 득실을 개의치 않았고, 그로 인한 후회가 없었다. 집안 일을 돌보는 일을 맡았고, 돈의 유무로 노심하는 일도 없었다.⁽²⁸⁾

위에서 본 일련의 사실들은 사회반역아로서의 홍경래의 자질과 성격을 여실히 형상화하고 있다.

거사 동기: 본 전은 홍경래의 거사를 구체적 사건으로 동기지움으로써 그의 반란을 우발적인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필연적 인과관계에서 형상화하고 있다. 즉, 평양 향시를 통과한 홍경래가 19세 때 대과를 보러 상경하여 당대 국정의 부패 현상을 직접 목도하고, 마음에 크게 격분한 나머지 마침내 혁명의 뜻을 품게 되는 과정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본 전은 당대의 사회상을 아래와 같이 그리고 있다.

은 나라가 당쟁에 몰두하여 참소, 모략, 증상, 아첨, 비굴을 일삼은 결과로 염치를 잃고 공평한 의론이 전혀 없었다. 양반들은 비루한 세속에 휩쓸려 선비의 청아한 기풍을 찾아볼 수 없었다. 국가의 기틀과 정권은 모두 척족의 농단에 들어가, 회피(賄賂)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사사로이 농간을 부리어 거리낌이 없었다. 관리 등용에 있어서는 오로지 문벌을 숭상하고 또 지방 차별을 두어서, 양반집 자제, 기호(畿湖)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재질이 우수하더라도 출세할 가망이 없었다. 세도가(勢道家) 자제들을 위해서는 불시에 별시과(別試科)를 보며 비록 유치하고 우매한 자라도 과장에 가보지도 않고 진사와 급제를 하기도 하고, 학문이 없어도 으레 교리 수찬에 올랐고, 나이 20이 지나면 바로 당상관(堂上官)에 올랐다. 그러나 시골의 선비는 아무리 각고의 노력을 쌓아 학문을 닦아 글을 잘 하고 글씨를 잘 쓰더라도 한편 과거를 보게 되면, 한갓 몇 백리 몇 천리길에 노자와 다리 힘만을 헛되이 할 뿐이었다. 비록 과장에 들어가 정성껏 시지(試紙)에 글을 지어 바치더라도 근시배(近侍輩)들의 휴지로 돌아가고 말 뿐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이 가운데도 평안도 사람들은 더욱 당쟁에 쓰이지 못하였다. 조선 초에는 고려 유민이라 하여 위험시하여 쓰지 않았고, 나중에는 천하게 여겨서 쓰지 않았다. 서울의 하인배나 충청도의 줄개따위에 이르기까지 서북인을 ‘사람(人)’이라 부르지 않고, ‘놈(漢)’이라 불렀다. 서북지방의 감사, 수령들은 백성의 재물 토색하기를 다반사로 여겼는데, 이 또한 서북민을 내심으로 천시한 까닭이다.⁽²⁹⁾

경래도 사마시에 응시하였지만 합격하지 못하였다. 당일 밤에 오른 자들을 알아보니, 모두 척족의 자제들이었다. 격노한 그의 눈에서는 번갯불같은 불뚝이 튀었다. 그러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다만 입가에 쓴 웃음만 짓고 돌아왔을 뿐이다....(중략)...그가 감히 왕권에 대항하여 세상을 뒤엎을 마음을 품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부터였다.⁽³⁰⁾

위의 대목은 홍경래가 거사하기에 이르는 직접적 동기를 설득력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것

(27) cf. id.

(28) cf. id.

(29) 傳, p. 367.

(30) 景來應司馬試而竟不中 問當日闕者皆貴族之子侄也 於是景來怒眼發電 然無可奈何 只得哂笑而歸... (中略)...敢生改造犯上之心 蓋自此時始(id.)

은 <홍경래의 난>을 인과관계에서 설명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타본에서는 이와 같은 구체적 형상화를 볼 수 없다. 소설적 구성이라는 점에서 본 전은 타본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하겠다.

거사 준비 : 낙방 후 10년간 홍경래는 동지를 규합하는 데 전력하는 한편 나라 안의 지세를 살피는 데도 힘썼다. 경성에 가서 내외의 형세를 자세히 살폈고, 박문수의 손자인 박종일(朴鍾一)과 사귀어 서로 사정을 통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 나라의 동서남북을 고루 편답하여 각처의 인정, 풍속, 지형, 도로와 물산, 백성들의 우환, 질고 등을 샅샅이 살펴 등한한 것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대사를 도모할 근거지로서 평안도를 의중에 두게 되었고, 평안도 각처에서 널리 동지를 구하였다. 모사(謀士) 우군축, 거부(巨富) 이희저, 문장 재예로 이름이 났던 김창시 등을 복심으로 삼은 뒤 각지의 용사들과 결교하였다. 이 가운데도 김사용, 홍충각, 이제초 등 세 사람은 용력이 출중하였다. 경래와 연결된 자는 태반이 각 고을의 향장과 수임(首任)들로 그 고을의 실권을 쥐고 있는 자들이었다.⁽³¹⁾

위에서 보듯 본전에서는 홍경래의 거병을 위한 준비의 주도함이 여실히 형상화되어 있다. 민중적 영웅으로서의 그의 면모가 여기서도 부각되고 있다. 전기적 영웅과는 달리 그의 거병을 위한 준비는 다분히 현실적 개연성을 가지고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거사 : 홍경래는 거사를 위한 주도한 준비를 한 다음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다. 본 전은 이 대목을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 즉,

신미년 추 7월에 해성이 건방(乾方)에 나타났다. 팔도의 농사가 대홍을 만났는데, 평안도 지방이 더욱 심하였다. 가을에서 겨울로 바뀔 철에 벌써 양식이 떨어져 백호가 되는 마을에 양식 걱정을 아니하는 집은 한 집도 안되었다. 인심이 흉흉하였으나, 위로 조정으로부터 지방의 감사, 수령에 이르기까지 전혀 진휼하는 정책을 쓰지 않았다. 도적이 별메처럼 들고 일어나니 관에서는 오직 잡아 죽이는 것으로만 일삼았던 때문에 백성들은 난을 일으킬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경래는 이러한 기회를 보고 내심 기뻐하였다.⁽³²⁾

그는 거사 시기를 포착하는 데 등한하지 아니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사의 본거지로서 지리적 여건이 유리하다고 판단된 청북(淸北)의 가산(嘉山), 다복동(多福洞)을 택하였고, 이곳에서 모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본 전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즉,

그 모친과 형을 모시고 처자를 거느리고 가산의 다복동으로 이사하였다. 다복동은 가산과 박천의 이름에 끼어 있는, 버드나무 잎과 같은 형국의 땅으로, 좌우가 유난스럽게 험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울창한 산비탈로 은폐된 아늑한 골짜기였다. 뒷쪽으로는 경의(京義)간의 대로와 통하였고, 앞에는 대령강(大寧江)이 길게 둘러 있었다. 골짜기의 안은 그다지 넓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길이가 약 20리 되었

(31) cf. 傳, pp.367~371.

(32) 辛未秋七月 警出於乾方 八路農作大凶 關西尤甚 秋多之交 已爲絕饑 百家之村 無一家安全者 人心洶洶 雖然 上自朝廷及方伯守令 顧無賑恤之策 盜賊蜂起 自官惟以誅殺爲事 所以百姓思亂 景來見此機會 暗自歡喜(傳, p.371)

고, 안과 바깥 골짜기는 수륙으로 통행하는 데 매우 편리하였을 뿐더러 깊고 열음이 적당하여 숨었다 나 타났다 하는 데 모두 자유자재로왔다.⁽³³⁾

그리하여 홍경래는 거사 수년 전부터 이곳에 수십칸의 기와집을 지어 거사의 본거로 삼았고, 홍경래 자신은 마을 앞 강 위에 있는 신도(薪島)에 몸을 감추고 있었다.

시기(時機)를 잡고, 지리를 얻은 홍경래는 사람을 모아 군사를 일으킬 최종적 단계에 들어섰다. 즉,

경래는 신도에 머문 얼마 후 밀사를 보내어 각처의 두령들을 섬 안에 불러 들였다. 이들은 비밀 의 식을 통해 서로 피를 마시고 맹서하였다. 맹서의 내용은 첫째 임신년 정월에 기병하는 일이고, 둘째 군 기를 비롯한 군수 물자를 예비하고, 군사를 모집하는 일이고, 끝으로 동지들이 단결하여 비밀을 엄수 한다는 것이었다.⁽³⁴⁾

그리고 나서 이들은 추자도(楸子島)에 토굴을 파고, 그곳에서 은밀히 돈을 주조하는 한편 호 피(虎皮), 화포(花布), 연철(鉛鐵), 살대(箭竹) 등속을 사들여 비축하였다. 한편 다북동에 새로 이 금광이 개발되어 광부를 널리 모집한다는 말을 퍼뜨렸다. 이를 듣고, 금을 캐러 각처에서 장정들이 모여들자 갖은 방법으로 이들을 붙잡아 두고 군사를 삼았다.⁽³⁵⁾

홍경래는 이렇게 모아들인 장정들을 정예의 군사로 양성하는 데도 비상한 능력을 발휘하였던 바 본 전은 아래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즉,

그곳에 한 발이라도 들여놓은 장정들은 어김없이 붙잡아 두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땅을 파게 하여 깊이 판 정도를 따져 기운을 평가하고, 새끼 줄을 쳐놓고 높이 뛰는 정도를 따져서 그 달렘을 평가하고, 사격·기마·검술을 가르쳐 그 우열을 가려서 병졸의 등급을 정하고, 상급을 많이 베풀어 그들의 환심을 샀다.⁽³⁶⁾

홍경래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참요(讖謠)와 유언을 퍼뜨려 민심을 교란하였다. 즉,

김창시를 시켜서 ‘임신 기병’의 네 글자를 파자(破字)하여 ‘一土橫冠에 鬼神이 脫衣하고 十疋에 加一尺하고 小丘有兩足이라’고 참요를 만들어 민간에 전파하는 한편 유언을 퍼뜨려 민심을 교란하였다.⁽³⁷⁾

거사에 즈음하여 홍군측이 퍼뜨린 유언에 관하여는 ‘순조실록’에 소상하다.⁽³⁸⁾ 본 전에서는 위에 쓴 이상의 구체적인 서술을 볼 수 없다.

(33) 傳, p. 371f.

(34) 傳, p. 372.

(35) *id.*

(36) *id.*

(37) *id.*

(38) 平安兵使 啓言…(中略)…禹君則本以妖術惑人 與金昌始爲言曰 大元帥洪景來五兄弟 皆有將才 二人自宣川起兵 二人自北道起兵 安州平壤可以次第攻取 湖西又有起兵以應者 宣川伽倻洞 鄭哥五歲自海島入中國 能使劔 有大志 招亡納叛 幾至累萬 壬申三月自北道入京云(後略)〈純祖實錄 卷15, 12年 正月丁丑〉

홍경래는 각지의 유력한 동지들에게 명하여 군수 물자를 날라오게 하였는데, 본 전은 후일의 공초(供招) 기사를 근거로 하여 그 내용을 소상하게 서술하여 꽤 현실성이 있다. 이에 의하면 칼, 창, 조총, 탄환 등 무기 등속을 위시하여 촉룡(觸籠), 위포(葦包)와 각색 기치(旗幟), 군복과 비단 등속, 군량, 돈, 말안장 등 여러가지가 다복동으로 줄지어 수송되었으며, 그 물량 또한 결코 적다 할 수 없는 것이었다.⁽³⁹⁾

본 전에 의하면, 준비가 주도하게 이루어지자 서울 이서(以西)로부터 의주에 이르는 지역에서 모여든 동지가 천여 명이고, 각도의 유민과 기민(飢民)으로 완력과 용맹을 지닌 자 천여 명이 모여 들었다. 이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게 되자, 더 이상 명년 봄을 기다려 거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마침내 신미년 12월 20일 갑자를 기하여 거병하기로 계획을 고쳐 세웠다. 홍경래는 스스로 평원대원수(平元大元帥)가 되어 휘하에 여러 부서를 정하고 장수들을 배치하는 한편 평안, 황해 양도의 각 고을에 사람을 밀파하여 내용토록 하였는데, 이들에게 서로 통할 암호를 주고, 은패로써 병부(兵符)를 대신하게 하는 한편 공(空)자, 배(背)자를 쓴 깃발도 나누어 주었다.⁽⁴⁰⁾

본 전이 서술한 위의 사실로 미루어 홍경래의 거사는 여간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본 전에 의하면 홍경래는 가장 먼저 평양을 점령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착수하여 실패하였던 것으로 그리고 있다. 즉,

12월 15일 야반 많은 장졸을 평양에 보내어 내용토록 하고, 대동관(大同館)에 불을 질러 관민이 불을 구하려고 하는 틈을 타서 각 관서에 불을 놓고, 인하여 관장을 겁박하여 죽이고 평양을 점령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대동관 밑에 매설했던 화약통과 도화선이 눈에 젖어서 약정한 시간에 폭발하지 않고 16일 오후에야 폭발하였다. 계획이 빗나가 성사치 못하고, 도리어 군교들의 수색이 삼엄해져서 파견하였던 장사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각자 도망하여 다복동으로 돌아왔다.⁽⁴¹⁾

위에서 보는 바, 홍경래가 평양 공략을 시도하여 실패한 것으로 서술한 대목은 오로지 본 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여타의 이본과 문헌에서는 볼 수 없다. 본 전의 작자가 홍경래의 거사를 사실 이상으로 과장하기 위해 허구로 형상화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마침내 12월 18일 홍경래는 대원수의 복장을 하고 단에 올라 하늘에 제를 지내고 군사 일으킴을 아뢰었다.⁽⁴²⁾ 본 전은 고로들의 구전이라고 단서를 붙이고 김창시가 읽은 격문(檄文)을 소개하고 있다. 즉,

(전략)…정권은 곧 국가의 공기(公器)요, 인민은 국가의 기본이라. 지금 척리(戚里)가 권세를 오로지하여 나라의 정치는 썩어 어지러워졌다. 천제 지상으로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은 곤핍하여도 조정

(39) cf. 傳, p. 372.

(40) cf. 傳, p. 372f.

(41) 傳, p. 373.

(42) 以十八日 即起兵爲定 召集各地潛在之徒卒 各具武裝 以當日黃昏 景來以大元帥服 登壇祭告皇天 <id.>

은 구제할 뜻이 없다. 하물며 우리 서북 지방 사람은 소민(小民)은 착취에 신음하고, 군자는 등용될 길이 없으니, 이 곧 펼쳐 일어날 때로다.⁽⁴³⁾

이에 대하여 ‘순조실록’은 “적도의 흉악한 격문은 그 말이 그지없이 도리에 어긋났다.”⁽⁴⁴⁾고 한 마디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홍의 거사의 대의명분은 격문에 광명정대하게 천명되어 있다고 하겠다.

군률: 본 전은 대의를 내걸고 군사를 일으킨 홍군의 군기의 숙정함과 군률의 엄정함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즉,

(홍경래는) 각 군에 명령을 내려 청색으로 복색을 삼고, 붉은 비단을 가슴과 등에 붙여 신호로 삼게 하였다. 장교는 전립(戰笠)이나 호피관(虎皮冠)을 쓰고, 병졸은 붉은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게 하였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엄히 신칙하여 규율을 준수케 하였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은 추호도 백성을 범하는 일이 없고, 오로지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지정 안을 깨끗이 하는 데 힘썼다. 본진의 장졸 가운데서 규칙을 범한 자 두세 명을 노변에서 효수하고, 각 방면에 전령하여 이 사실을 방으로 널리 알려 기율을 엄격히 지키게 하였다.⁽⁴⁵⁾

위민(爲民): 홍군은 기병하여 얼마 아니하여 청북의 여덟 고을을 점령하였다. 점령한 고을에서는 옥문을 열어 갇힌 사람을 놓아 주고, 관고의 곡식을 풀어 백성을 진휼하였다. 즉,

여덟 고을이 잇달아 함락되고, 도로가 막히니 인심이 흉흉하여 물 끓듯하였다. 남북군이 경래의 명령을 받들어 이르는 곳마다 옥을 파하여 갇힌 자를 석방하고 창고를 열어 백성을 진휼하는 한편 군기를 엄히 단속하고 노약자를 위무하니 민심이 홍군으로 돌아와 마음으로부터 복종하였다. 모병(募兵)에 응하거나, 홍군을 음식으로 대접하고 위로하려는 사람들로 저자를 이루었다.⁽⁴⁶⁾

28일 철산에 진공하니, 기치점극(旗幟劍戟)이 수십리에 잇달았고, 울리는 군악 소리가 맑고 밝으니 시골 백성들이 다투어 보려고 하였고, 길에 부복하여 항복하기를 청하는 자가 많았다.⁽⁴⁷⁾

위에서 보듯 홍군은 철저하게 백성을 선무하여 심복케 하였는데, 홍경래의 위민 정책이 주요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국록을 먹는 첨사(僉使)로서 싸우지 아니하고 홍군에게 항복한 김인후의 경우,

김사옹이 ‘죽을 먹는 자 마땅히 죽어 절개를 지킨이 신자된 자의 당연한 도리어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였더뇨?’ 하고 따지니 인후가 대답하여, ‘공들은 의인이요, 의병인데 어찌 감히 항거하겠소이까?’ 하였다.⁽⁴⁸⁾

(43) 政權者 自是國家之公器 人民者俱是國家之基本 今賊里專權 國政腐亂 天災地殃 歲飢民困 朝廷無救濟之意 況我西土之人 小人困於陵霄 君子無路登用 此正奮起之時也 <id>

(44) 賊徒凶黷 辭語絕悖 <『純祖實錄』 卷 14, 11年 12月 丁卯>

(45) 時景來…(中略)…傳令各軍 服色尙齊 以紅緞附青背爲信號 將校戴戰笠虎皮冠 兵卒以紅巾裹頭 嚴勅軍兵 恪守規律 所遇秋毫無犯 惟以安民清境爲務 大陣將卒中 有犯則者二三名 梟首路邊 傳令各路 揭榜以肅軍紀 <傳, p. 374>

(46) 傳, p. 376.

(47) 傳, p. 375.

(48) id.

관의 우두머리 된 자로서 사세부득이하여 그리하였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반군>을 두고 공명연히 의인이니, 의병이니 일컬은 것을 다만 구명을 위한 첨사(諛辭)로만 치부해버리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는가 한다. 당대 일반의, 홍군에 대한 태도를 은연 중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김사용과 김창시가 의주를 공격하고자 피할 때에 용천 칠산의 이른바 사인배(士人輩)들로 사용의 군영에 달려와 헌책하는 자가 자못 많았다.⁽⁴⁹⁾

자진하여 홍군에게 전략상의 헌책을 하는 자가 상당수 있었던 것은 그의 거사가 명분이나 실재에 있어 대다수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본 전의 작자는 위와 같은 일련의 형상화를 통해 홍경래의 거사를 백성을 위한, 백성의 지지를 받는 의거로서 성격화하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겠다.

도덕성의 고양 : 본 전의 작자는 혁명가로서 홍경래를 성격화하면서도 개인의 품성이 관용적이며, 도덕성이 높은, 또 다른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일례로 공릉령(恭陵令) 한호운(韓浩運)이 홍군의 진영을 찾아와 면대하여 홍경래의 <반역>을 온갖 욕설로 질책하여 마지 않으니, 좌우에서 그 말을 듣다 못해 죽이려 하자, 홍경래는 그가 효자임을 내세워 죽일 수 없다 하고 성 밖으로 쫓아 보내게 한다(그러나 우군측이 자기 치소로 데리고 가서 살해하였다). 홍경래는 그의 질책에 대하여 거듭 온공한 말로 의리를 따져 자신의 충정을 간곡히 들려 주나, 한호운은 시종일관 경직된 자세로 질책만을 일삼을 뿐이었다.⁽⁵⁰⁾

배신 : 대의를 내걸고 모여든 홍군의 진영에도 뜻하지 아니한 배신자가 나타났다. 일단 홍군에 가담하였다가도 전세가 불리해지거나 자신의 이익이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 배신하여 자구책을 강구하려 드는 인물들과 사건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즉, 본 전에 의하면 안주의 비장으로 홍경래를 추종했던 김대린(金大麟) 등은 안주 공략을 누차 진언하였으나 홍경래가 듣지 않자 초조해진 나머지 ‘대사는 다 끝났다. 홍경래의 목을 베어 병영에 갖다 바친 공으로 속죄함만 같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자고 있는 홍의 목을 베었으나 경래는 손으로 칼날을 잡고 위병을 불러 대린 등 4명의 배신자를 그 자리에서 잡아 죽였다. 이 때 홍경래는 머리와 손에 증상을

(49) 土用…(中略)…自領大軍 留鎮良策站 與金昌始謀攻義州 時龍川鐵山之所謂土人輩 赴土 用軍 獻策者頗多(傳, p. 377)

(50) 時有恭陵令韓浩運…(中略)…直抵定州城下 大呼曰 我與汝將帥洪景來 有面接談話事…景來素聞浩運名聲…命左右解其縛 延上賜坐…浩運大聲曰 欲曉諭汝而來耳 景來微笑曰 尊兄差矣 兄必不知吾之義理吾之心事也 浩運大聲大叱曰 如汝逆賊漢 有何義理耶 景來猶不怒而溫言曰 兄但知其一 不知其二 只知我之爲逆賊 而不知我之爲愛國愛民人也 兄所謂逆賊者 不過是先入之偏見矣 請聽吾言也 浩運大叱曰 汝亦生於聖化中 不思四百年休養之恩 敢生逆心 驅無辜之民 抗拒王師 汝罪莫大 必不免天誅矣 景來於是亦高聲叱之曰 眞孽孽子 此地何地 無禮放恣乃爾耶 汝雖登科 有何官守之責耶 汝亦生以平安道所生 有何國恩君德之鴻大耶 凡國內之百姓 當共享樂 今關西西北人 國家之所以待之者何如耶 凶年飢歲無食 而朝廷曾有顧恤之舉耶 不惟不恤 加之食官苛歛誅求 民何以料生耶 西北人雖有通天之才 絕人之學 有何所用於此世耶 吾憐汝而赦之 汝其改心也 浩運又大叱曰 如汝禽獸輩 有何辨說耶 時左右欲殺之 景來笑曰 可惜可憐也 因禁止左右曰 吾聞此人 有孝誠 吾何忍殺孝子也 即命放送於城外(時君則聞之 告景來請送于自己處所 景來許之 浩運竟被君則所殺)(傳, p. 381)

입고 유혈이 그치지 않았다. 홍경래는 이것을 비밀에 부쳐 밖에 말아 나가지 않게 하였다. 그러나, 홍경래 자신 이 일로 정신적, 육체적 타격을 입어 점차로 용기가 줄고, 예전처럼 시원하게 싸울 수가 없었다.⁽⁵¹⁾

조문형(趙文亨)의 경우 자신의 속죄와 중상(重賞)을 노려 김창시의 머리를 베어 가지고 도망하여 선천에서 김익순을 만나 돈 천량에 창시의 머리를 김익순에게 팔아 넘겼다.⁽⁵²⁾ 대의로 결집한 홍군의 대열에도 이와 같은 비열한 배신자가 끼어들 여지는 얼마든지 있었던 것을 냉정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

쇠문 : 승승장구(乘勝長驅)하던 홍군도 장기전이 되고, 관군이 대세를 휘어잡게 되면서 사기가 떨어지고 전의가 저장되어 갔다. 3월 16일 관군이 철산을 수복한 뒤로 관군의 기세가 크게 떨치고, 홍군의 패보가 성 안에 널리 전해지면서 홍군의 기세가 좌절되고, 싸우지 않고 도망하여 흩어지는 자가 심히 많았다. 홍군의 북진(北陣)이 전멸하니 정주 이서는 완전히 관군의 손에 들어갔다. 북진이 궤멸한 것을 알고 태천, 구성, 남창 등지에 진 치고 있던 홍군도 차차로 흩어져 달아나 결국은 정주성 하나를 고립무원한 가운데 지키는, 외로운 형세가 되었다. 관군에게 완전 포위된 정주성을 고수하는 홍군 진영의 결사적인 항전을 아래와 같이 형상화하고 있다.

관군측의 8진이 밖을 포위하여 정주성은 극도의 곤경에 다달아 있었다. 관군으로서는 성벽이 견고하고 기세가 완강하여 좀처럼 무너뜨리기 어려웠고, 홍군은 고립된 성에서 약한 군사로 저항하려니 그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여기에 염병마저 유행하여 각처에 사망자가 많이 생겼고, 관군의 장졸간에도 환자가 속출하였고, 정주성 안은 더욱 심하였다. 홍군은 군량도 떨어져 가니 처음에는 매일 쌀 50여석을 먹다가 차차 감하여 30여석으로 줄더니 그나마 대어가기가 어렵게 되었다. 성 안의 민가에 있는 신상미(神箱米)까지 한 톨 남기지 않았으며, 더러 밤중에 틈을 보아 성을 나가 강제로 부민(富民)의 양곡을 빌려와 근근히 견뎌냈다. 3월 중순부터는 종종 밥에다 밀가루를 섞어 먹었으며, 성 안의 소나무 껍질을 다 베껴 먹었고, 가축도 모조리 잡아먹고, 소가죽을 말려서 대용식을 삼았다. 이 때문에 홍군측은 병사자, 아사자, 전사자, 도망자가 반수를 넘었다. 더구나 관군측에서 연을 띄우거나 편지로 성 안의 군민을 효유하여 벼슬과 상을 준다는 등 달콤한 여러가지 미끼를 던져 귀순함을 종용하고 있었다. 경태로서도 이를 방지하기 어려웠다. 이제신과 이방옥 등이 귀순하려고 꾀하다가 발각되어 피살되었다.⁽⁵³⁾

이로써 보전대 홍군의 처지는 극도의 악조건에 처하여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홍경래는 사기진작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음이 나타나 있다.⁽⁵⁴⁾ 즉,

경래는 성 안의 사람들의 마음을 위안하기 위해 때때로 연훈루(延薰樓) 아래에서 말을 달리고 칼춤을 추어 장졸들로 하여금 그를 보고 탄복케 하였으며, 군졸들 가운데 전사자가 생기면 자기가 직접 제

(51) cf. 傳, p. 376.

(52) cf. 傳, p. 379.

(53) 傳, p. 382.

를 지내 주고, 병자에 대하여는 몸소 문병을 갔다. 혹 군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통곡하여 그들을 감동 시키기도 하였으며, 혹 자신을 가리켜 자랑삼아 말하여, ‘외양이 이만하고서 대사를 어찌 여기서 멈출 것인가?’ 하였다. 그리고 때때로 군악을 울리고 술을 마시며, 사람들과 함께 즐기었다. 하루는 집을 뿔아들고 춤을 추며 입으로 시 한 작을 지어 읊었다.

‘천지가 뜻이 있어 한 남자를 낳았도다. (乾坤有意生男子)’

한 장수가 이에 화답하기를,

‘일월이 무정하여 장부 늙었어라. (日月無情老丈夫)’

라고 하니, 홍경래는 추연히 노기를 띠고 목 뺨 기세를 보였다.

‘시의 작으로는 방불하다 하겠으나, 뜻과 기상이 어찌 이다지 졸악하나?’⁽⁵⁵⁾

경래는 기울어져가는 대세를 그 화시(和詩)의 문맥에서 재빨리 간취하였다. 그러나, 그로서는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전의 작자는 홍경래가 고립무원의 정주성에서 관군과 대치하여 고전하고 있는 데는 그 나름의 계획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서술하였다. 이 점 이본들과 다르다. 즉,

경래가 이처럼 고단한 성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은 실은 벗어날 도리가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기다리던 바가 있었던 까닭이다. 하나는 박종일(朴鍾一)이 서울에서 난을 일으키기로 한 것이요, 둘은 북쪽의 각 고을로부터 원병이 오기로 한 것이요, 셋은 정시수(鄭始守)가 호병(胡兵)을 이끌고 오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하나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⁵⁶⁾

본 전의 작자는 이것이 단순한 뜬 소문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사실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박종일은 박문수의 손자로 일찌기 경래와 깊이 사귀었던 사이로 경래가 봉기한 소식을 듣고, 미리 경래에게 기별을 하고 임신 3월 11일 밤에 난을 일으켰으나, 관에 의하여 진압되었고, 북쪽의 원병은 산간 고을의 명포수들로, 이들은 각기 군사를 모아두고 경래의 지휘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서로의 통신이 여의치 못한 데다가 형세가 홍군에 불리해짐에 따라 약속을 어겨 움직이지 않았고, 호병을 동원하려던 정시수는 5세 때 중국으로 들어가 마적의 우두머리가 된 인물로, 경래와 같이 일을 도모하기로 약속하였던바 홍의 기병 소식을 듣고, 수하의 군대를 이끌고 강계 연려(延閼) 등지로 잠입했었다고 하였다. 관측의 기록은 정에 관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하고, 홍이 대중을 의혹시키려고 조작한 것이라고 했으나, 송지렴(宋之濂)의 일로 보면 홍이 호병과 동모했던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강계 향임(鄕任)이던 송은 공금을 결손해 놓고 갚을 길이 없던차 홍의 기병 소식을 듣고 달려가 그에 가담하였다. 홍군이 정주성으로 들어갈 때 송은 급히 호군을 불러 올 것을 청하여 홍의 허락을 받고, 군비에서 다액의 돈을 받아 가지고 만주로 가다가 압록강을 건너기 직전에 김사용의 북군이 궤멸하였다는 소식을

(54) *id.*

(55) *id.*

(56) *id.*

듣고, 그 길로 강제로 돌아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결혼한 공금을 청산하고, 나머지 돈으로 의병을 일으켜 관군의 편이 되어 싸웠다고 했다.⁽⁵⁷⁾

본 전의 작자는 쓰기를, “이를 보면 호병이 오지 않았던 것과 경래가 앉아서 기다리다가 패망한 것은 모두 송지림이 그 군자금을 가로챘던 때문으로 보겠다.”⁽⁵⁸⁾고 홍경래 패망의 결정적 요인으로 송지림의 배신을 꼽고 있다.

최후: 정주성을 공격하는 관군측도 여간 고전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조정으로부터는 ‘양란 완구(養亂玩寇)’한다는 문책이 내렸고, 빨리 정주성을 공략하라는 성화 같은 독촉이 여러 차례 내려 왔다. 순무중군 유효원은 장수들과 의논한 결과 땅 밑을 뚫고 들어가 성을 폭파할 계락을 세워 임신 4월 19일 성공하여 성을 탈취하고 홍군을 섬멸하고 〈홍란〉을 완전히 평정하였다. 홍경래도 이 복새통에 전사하였다. 본 전의 작자는 그의 최후를 아래와 같이 그리고 있다.

경래는 우군측·홍총각과 함께 급히 의논하여 보물로 변장하고 몇 명의 심복 장졸만 데리고 남문으로 나갔다. 장차 배를 타고 해상으로 도주하기로 계책을 세웠던 것이다. 막 남문을 빠져 몇 보 걸어 나가는데 마구 쏘아대는 총탄에 경래는 가슴을 맞고 길 위에 넘어졌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걸으려고 하는데 관군이 덩벼들어 난도로 참살하고 말았다. 이 때 경래의 나이 33세였다. 혹은 29세라고도 한다.⁽⁵⁹⁾

이렇게 홍의 최후를 묘사한 작자는 그의 죽음에 다음과 같은 여운을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위에 쓴 것은 관군측의 기록이고 정주의 야담에는 경래가 ‘성벽이 무너질 때 몸을 날려 성을 넘어서 먼 곳으로 달아났다고 하며, 그 날 살해된 것은 가짜 홍경래였다고 한다.’⁽⁶⁰⁾

사실은 차치하고, 홍의 죽음을 결코 받아들이려고 않는 일반 민중들의 의식을 작자는 공감을 가지고 수용하고 있는 듯하다.

홍경래는 민중의 의식 속에 〈불사신(不死身)의 영웅〉으로 살아 있다는 것도 된다.

한편 작자는 정주성 함락시의 관군의 잔혹상을 사실적 수법으로 재현해 놓았다. 즉,

성이 함락될 때 관군들은 함부로 총질하고, 함부로 창질하여 성중 사람들은 남녀 노유를 가리지 않고 만나는 대로 죽여서 쌓인 시체가 성중에 가득하였다. 관군의 한 장수가 마침 길가에서 어린 아이가 머리 없는 여자의 젖을 빨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켜 측은하게 생각하여 즉시 명을 내려 부녀자와 10세 이하의 남자는 죽이지 말도록 하였으나, 이미 때 늦어 어쩔 수 없이 된 경우가 많았다.⁽⁶¹⁾

(57) cf. 傳, p. 382f.

(58) 傳, p. 383.

(59) 傳, p. 384.

(60) *id.*

(61) *id.*

작자는 홍경래의 죽음을 비극적인 것으로 사실화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불사신의 민중적 영웅으로서 그 죽음에 여운을 남겨 신비화하고 있다. 그 대목에 이어 왕사(王師)를 일컫는 관군의 비인도적 살상행위를 형상화함으로써 은연중 홍군과 관군 두 세계를 비판적 시각에서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다.

부차적 인물의 형상화: 본 전에 등장하는 홍군의 장수들은 작품상 부차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홍경래의 성격을 나누어 가진, 이른바 <홍경래의 분신>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들의 성격은 홍경래와 기본적 동질성을 가지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그 일례를 홍군 진영의 용장 이 제초(李濟初)에서 볼 수 있다. 즉,

이제초가 말을 달려 비 오듯하는 탄환 속으로, 뛰어들어 좌충우돌하며 관군을 치 죽였다....(중략)... 당초 관군들이 이제초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밀려있으나, 싸우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제초의 군대는 관군에게 포위되었다. 한곳 두곳 차차로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제초가 노하여 호령하며 막아보려 하였으나, 별 수 없었다. 제 아무리 용맹해도 혼자 힘으로 지탱하기는 어려웠다. 그는 포위망을 뚫고 북쪽으로 빠져 달아났다. 그가 포위망을 뚫을 때 관군 장졸들 가운데 아무도 가까이 가서 길을 가로막고 나서는 이가 없었다. 그의 용력을 두려워 했기 때문이다. 이제초가 달아나 관현 서편에 이르자 일대의 관군이 길을 가로막았다. 그는 말 위에서 몸을 날려 길을 가로막는 군사들을 마구 죽이다가 힘을 너무 써서 밟고 있던 등자(鎧子)가 그만 끊어져 말에서 떨어져 땅에 서 있었다. 이 때 관군 장사대(壯士隊)의 김계묵(金啓默)·박종묵(朴宗默) 등이 김재명이 위급함을 보고 일제히 달려들어 겹겹이 둘러쌌다. 이제초는 기운이 저상하여 칼을 쥐고 가운데 서 있었다. 그러나 장사대 가운데 누구도 감히 이제초에게 덤벼들 자가 없었다. 이 때문에 한식경이나 서로 멀뚱히 바라만 보고 피차 어찌할 바를 몰랐다. 관군은 응원병이 계속 밀려와 겹겹이 둘러싸니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이제초는 빠져 나가기 어려운 줄 알고 크게 부르짖었다. ‘관군 대장아, 너희가 만약 나를 살려 준다면 내가 정주성에 들어가서 홍경래의 머리를 베어 관군에게 바치겠다.’ 관군의 장수는 거짓말로 ‘좋다!’ 하고 이어 말했다. ‘네가 항복한다는 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믿기 어려우니, 그 표적으로 결박을 달게 받아라. 그래야 우리가 믿겠다.’ 이제초도 말하기를 ‘너희들도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하늘을 가리켜 맹세한다면 나도 결박을 받겠다.’ 관군의 여러 장수들이 일제히 맹세를 했다. 이제초는 본래 솔직한 무인이었다. 이에 얼굴에 처참한 빛을 띠우고, 한숨을 쉬며 칼을 던지고 결박을 받았다. 곧 관산군수가 나와서 이제초를 직접 신문하는데, 주리를 들고 몽둥이로 죽이면서 전후 사실을 불게 하였다. 이제초는 언사가 태연자약하고 전혀 괴로워하는 기색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관군의 장수들은 의심해서 마구 다리를 부러뜨리게 하였다. 이제초는 대로하여 언약을 배반하고 무례함을 꾸짖으며 부러진 다리로 붙은 땀자 포승 줄이 모두 끊어졌다. 그리고 당장 주먹으로 관군의 장수 넷을 치 죽였다. 관군의 장졸들이 칼날로 마구 내리쳤으나 그의 몸에 칼날이 들어가지 않았다. 모두 덤벼들어 다시 결박을 짓고 그의 몸을 검색해 보니 전신에 철갑을 입고 있었다. 목을 자르려고 했으나 목이 워낙 단단하여 칼이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제초는 절절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이 정녕 나를 죽이고자 하거든 먼저 나의 턱 밑을 찔러라.’ 그 말대로 하여 그를 죽일 수 있었다. 관군 병사들도 모두 탄복해 마지 않았다.⁽⁶²⁾

(62) 濟初馳馬突入 銃丸如雨之中 左往右來 擊殺官軍…(中略)…始則官軍皆避濟初之鋒 觸處披靡 轉戰過一刻二刻 濟初之軍 漸漸被圍於官軍 濟初軍 漸漸散亂 一個二個稍稍崩壞 濟初怒號禁之不得 收拾不能 濟初雖勇 獨力難支 渠亦不得已 突圍而出 向北而走 方其突圍 官軍將卒 無一接近攔當者 蓋畏其勇也 濟初走至館西 又有一隊官軍 攔住去路 濟初於馬上欲飛身斬攔路兵 用力太過 蹈絕馬鐙 跌立馬下 官軍軍官金再明舉槍刺之 濟初手扶握其槍尖 引再明落馬 時官軍之壯

용장 이제초의 형상화는 과시 본 전의 백미편이다. 이 점은 다른 이본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신미록>은

양장이 응성 출마하여 적장 이제초로 더불어 싸워 십여함에 계목이 한 창으로 제초를 찌르니 제초가 크게 고향하고 창을 잡아 당기니 계목이 당치 못하여 말에서 떨어져 경히 위급하더니, 김이해 급히 내달아 창을 들어 제초를 찌르니 제초가 말에서 떨어지거늘 군사를 호령하여 제초를 결박한 후에…(중략)…부사가 대회하여 양장을 중상하고 무사를 명하여 제초를 원문 밖에 내어 배고 …(후략)⁽⁶³⁾

라고 하여 제초의 용맹을 그렸으나, 그의 최후를 그리되 불사신적인 영웅으로 그의 죽음을 장엄화하고 있지는 않다. <홍경래 실기>는

장수군관 김계목이 내다라 홍군장 이제초로 더브러 싸워 십여함에 계목이 정신을 가다듬어 한소리 질으며 창을 들어 질으니 제초 또한 크게 고향하고 계목의 창을 잡아 힘을 다투야 다리허니 계목이 당치못하야 말에 엎어떨어 경히 위급하더니 은산 사람 장수 감리해 내다라 계목을 구하고 제초로 싸울시 제초 | 당치 못하야 다라나거늘 리해와 계목과 장수군관 박종묵과 또 장수군관 한 스름이 합쳐 썰니 소리 동립 압들에 니르러 제초 | 투구를 버서버리고 창을 것으로 가져 종목을 주며 투항하거늘 사인이 제초를 함중진에 보내어 그 머리를 버히니…(후략)⁽⁶⁴⁾

제초를 용감한 장사로 그리고는 있으나, 이 역시 초인적인 용력의 소유자로 그리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자진하여 투항한 것으로 그리고 있는 점이 다르다. <정주가>에서는

천근역사 이제초는 /미련한 힘뿐이라 /곽산골 뒤고기의 /첫싸움 위턱하다 /녕니훈 안주장교 /무어시라 달녀쳐서 /칼노코 항복하니 /그뜻을 미들소나 /윤함중 칼을 드러 /죽서의 버히니니 /후환을 더러시니 /시비를 그만 두쇼⁽⁶⁵⁾

라고 하여 제초의 역사됨을 말하면서도 ‘미련한 힘뿐’인 인물로 그리고 있다. 뿐더러 안주장교의 거짓 포임을 ‘영리한’ 것으로, 항복한 제초를 죽서에서 버인 윤함중의 처사를 ‘후환을 던’일로 칭찬하고, 이를 두고 시비하는 것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정작 <순조실록>에 나타난 제초에 관한 기술은 본 전의 서술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土賊金啓歇朴宗歇等見再明之危急 一齊並進 重重圍住 濟初亦氣沮 按劍立於中央 壯士隊中亦無敢逼濟初者 是以一時 間脈脈相看 彼此莫知所爲 雖然 官軍之追兵繼至 漸漸圍住 重重疊疊不知其數 濟初料難脫出 乃大呼曰 官軍將 汝若活我 吾當入定州城 新洪景來頭獻于官軍矣 官將佯曰 諾 乃請曰 汝之降真假難信 若果真降 則以降標 甘受結縛 乃可信 濟初亦曰 以汝不背約之意 指天爲誓 則吾當受縛 官軍諸將 一齊盟誓 濟初是率直武夫 於是面帶悲慘 口發太息 擲劍就縛 俄而郭山郡守出而刑訊以周牢亂杖 使之供辭 濟初言辭自若 少無痛苦之樣 官將疑之 使之折脚 濟初大怒 猛責其背約無禮 以折脚躍起 牢索盡絕 拳殺官軍將四人 官軍將卒以亂刀斫之 刃不入濟初之身 諸將合力 仍復結縛而搜檢其身 則濟初全身衣以鐵網 乃欲斬項 項堅刃又不入 濟初乃大笑汝若必欲殺我 先自領下刺之也 如其言 得以斬 官軍將士莫不歎服<洪景來傳>

(63) 辛未錄, p. 459.

(64) 洪景來實記, p. 41.

(65) 定州歌, p. 162.

안주 장사군관 김계목이 술선하여 뒤쫓아가 제초를 사로잡고자 하니 제초가 손의 칼로써 계목을 찌르려고 하였다. 계목도 창으로 먼저 그 손을 치고 잇달아 그 가랑이를 찌르니 피가 솟구쳤다. 다시 적의 머리를 곧바로 찌르려고 하였다. 그런데 창 날의 갈구리가 제초의 철갑 고리에 걸렸다. 한참을 서로 붙들고 돌아가다가, 제초가 도리어 계목의 창을 빼앗으니 계목이 몸을 뒤집고 말에서 떨어졌다. 형세가 매우 위급하였다. 서울서 온 군관 전재명이 달려가 구해내고, 힘을 합하여 사로잡았다. 그 때의 광경을 온 군사들은 놀라와 하며 보았다. 제초는 적장 가운데서 가장 힘센 자로서 실로 쉽사리 포박할 수 없었으나, 김계목이 먼저 창으로 찌르고 전재명이 뒤따라 힘을 합하여 돕고, 거짓말로 꼬여 마침내 사로잡을 수 있었다.⁽⁶⁶⁾

또 평양병사는 계(啓)에서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행진(行陣)에서 보고한 바 적진의 선봉 이제초는 문초(問招)할 때 사납게 주리를 틀어 살이 잘리고 뼈가 부서졌어도 오히려 결음을 걸을 수 있었고, 언어가 자약(自若)하였고, 그 힘이 사람에 뛰어나 심상하게 논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그를 문초하는 가운데 그의 동생 제신(齊臣)이 바로 정주성 안에 있다고 하니, 압송하는 길에 혹 뜻 밖의 염려가 있을까 두려워...(중략)...군사들 앞에서 효수(梟首)하였다고 합니다.⁽⁶⁷⁾

위의 <순조실록>의 두 개 기사로 보아 이제초의 출중한 용력은 결코 본 전만의 허구적 서술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 이제초가 스스로 잡히기까지의 숨막히는 장면 묘사도 단순한 허구는 아닌 듯하다. 제초가 관군측의 거짓말과 거짓맹세를 믿고 사로잡힌 것으로 그런 본 전의 서술은 사실과 틀리지 않는 것 같다. 다만 제초의 불사신적인 형상화——전신을 철망으로 옷 입고 있어 칼날이 몸에 꽂히지 않았다는 것이며, 아무리 칼로 목을 찢어도 칼이 들어가지 않아, 죽일 수 없었고, 자신을 죽이지 못해 하는 관군을 향해 꺾꺾 웃으며, 스스로 턱 밑을 찌르게 하여 죽는 따위의 형상화는 이제초를 절대(絶代)의 영웅으로 비범화하기 위해 작자가 의도적으로 꾸며 넣은 부분으로, 다른 이본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본 전에 나타난, 궁지에 몰려, 빠져 나갈 길을 잃은 제초가 자기를 살려 준다면 홍경래의 목을 베어다가 바치겠다고 제의한 것은 아무리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영웅으로서의 성격을 크게 손상하는, 부정적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설사 진심이 아닌, 일시 방편의 속임수였다고 해도 영웅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부정적 형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 말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는 한낱 자기 목숨 하나 구하기 위해 의를 저버린 비열한 인간일 수 밖에 없게 된다. 어쨌거나 이제초의 배신적인 발언은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처럼의 <영웅상>을 흐리게 하기에 족하다

(66) 安州壯士軍官金啓默挺身追逐 欲擒齊初 以渠手劍擬刺啓默 而啓默亦以槍先擊其手 連刺其膀 驚血湧出 更欲直刺腋項 而槍刃之鉤 忽掛齊初之鐵甲連環 相持者有頃 齊初反奪啓默之槍 啓默翻身落馬 勢至危急 京召募軍官全再明追到援出 協力捉納而其時事狀 一軍驚觀 齊初即賊將中最有膂力者 實非容易縛致 而金啓默首先槍刺全再明踵後協助 讒言誘致 竟得活捉 <『純祖實錄』 卷 16, 12年 6月 乙巳>

(67) 平壤兵使啓言 行陣所報 賊陣先鋒李齊初推問之際 猛杖周牢 肉折骨碎 尙能行步 言語自若 其膂力之過人 不可以尋常論 且渠招中 其弟齊臣 方在定州城中云 押送之路 恐有意外之慮 并與金國臣國柱 軍前梟首云 <Ibid., 卷 15, 12年 正月 丁亥>

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작자의 불용의에 책임을 돌리기에 앞서 실제로 이제초가 그렇게 처신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을 듯하다. 본전의 작자는 인물의 성격창조에 있어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던 〈역사소설〉 나름의 제약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전에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실록을 통해 볼 때 이제초를 생포하고도 경성에 상송치 않고 곧바로 죽인 것은 그의 과인한 용력을 두려워 한 것과, 정주성에 그의 동생 제신이 있어서 혹 그를 압송하는 도중에라도 탈취하리 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이제신은 그 뒤 정주성에서 이방옥과 귀순을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피살되었다). 일부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본 전이 다룬 이제초의 형상은 어디까지나 초인(超人)에 가까운 비범한 영웅상으로, 궁극적으로는 의적 홍경래의, 또 하나의 분신으로 그려졌다는 인상이 짙다.

* 봉건관료 :

본 전은 의적 홍경래의 면목을 여실하게 그리는 반면 이와 대조되는 조선 봉건관료의 성격화도 아우르고 있다. 봉건관료는 대개 두 가지 상반된 유형을 제시했다고 보겠다. 첫째가 정시(鄭時)형으로 충절과 강직성을 지닌 긍정적 인물형이고, 둘째가 김익순(金益淳)형으로 불충하고 배임하는 부정적 인물형이다. 본 전의 작자는 주인공의 의적활동을 평가하는 나머지 봉건관료는 가릴 것 없이 누구든 전적으로 매도하고 부정하는 유의 단순 논리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하였다.

1) 정시형(鄭時型) : 본 전의 작자는 난초(亂初)에 순절한 가산 군수 정시와 그의 부친 정노의 사적을 비교적 간결하게 서술하였다. 이본에서 이들의 순절을 상세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즉,

선봉장 홍충각이 정병 백여 명을 이끌고 관아로 돌입하자 내용한 고을 아전 이맹억 등이 군악을 벌이고 삼교(三橋) 번에 나와 환영하는 것이었다. 관아의 뜰에 장교나 줄개는 하나도 볼 수 없었다. 그때 정시는 다복동의 실정을 감영에 알리려고 보장을 초하던 즈음에 함성이 들리고 화광이 보여서 놀라 문 밖으로 뛰어 나갔다. 마침 홍충각이 칼을 휘두르며 뛰어올라 ‘군수는 항복하라.’고 꾸짖었다. 정시와 그의 부친 정노는 모두 굴하지 않고 적을 매도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⁶⁸⁾

비교적 냉정한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 실록의 기사와 거의 일치하는데 실록은 정시 부자의 순절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그려 그들의 충절을 한결 돋보이게 하고 있다. 〈신미록〉은 문학적 허구로 매우 감동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 그날 밤 군수는 깊은 잠에서 놀라 깨어난 것으로, 홍경래가 직접 군수의 머리를 벤 것으로 그렸는데⁽⁶⁹⁾, 실록⁽⁷⁰⁾이나 본 전은 그렇지 않다.

(68) (前略) 通洪總角揮劍上階 叱郡守降服 鄭時與其父鄭魯皆不屈 罵賊而死 <傳, p. 373>.

(69) 『辛未錄』, pp. 433~435.

(70) cf. 『純祖實錄』 卷15, 12年 正月 甲申.

이는 사실과 다른 형상화로 보인다. 이 점은 <실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군수는 그 날 밤 깊은 잠에서 놀라 깨었고, ‘홍군장’이 군수의 다리를 끊어 죽인 것으로 그리고 있다.⁽⁷¹⁾ ‘홍군장’이 과연 홍경래를 일컫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정주가>에서는 “불상하다 불상하다/명군슈가 불상하다/향안을 직히다가/인심을 일허던가/인병부 구지잡고/봉적을 몬져바다/한강선심 유손으로/부자봉변 참혹하다”⁽⁷²⁾라고 읊었는데, ‘향안을 직히다가 인심을 일허던가’라고 한 것은 그 날 밤 관아의 장교나 아전이 하나 없이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이 적을 맞이한 고단한 정시의 형세를 두고 하는 말인 듯하다. <정주승전곡>은 다만 “충신일네 충신일네/가산군슈 충신일네/인병부를 아니쥬고/삼디절스 거룩하다”⁽⁷³⁾라 하여 아낌없는 예찬만을 늘어놓았다.

본 전에서의 정시 순절 기사는 다른 이본의 감동적이고 예찬 일변도의 서술과는 달리 매우 냉정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그러나, 그의 순절을 조금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다른 의미의 호소력이 있다고 하겠다.

2) 김익순형(金益淳型) : 본 전은 앞의 정시에 대한 서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궤결한 김익순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도 비교적 냉정한 객관적 서술을 하고 있다. 작자 자신의 비판이나 감정이런 비난은 일절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선천부사 김익순은 최봉관을 체포하여 문초한 끝에 철산의 내용자 정복일을 붙잡았고, 다시 그를 심문하여 그들의 계획을 알아냈다. 선천부사는 놀라고 겁이 나서 검산산성으로 도피하였다. 김사용은 부장을 보내어 검산산성에 격문을 보내어 유혹하고 협박하니 선천부사는 크게 두려워하여 항복하기를 청하였다. 25일 사용이 선천 관아에 들어가서 항복한 부사를 잡아들여 항복의 진가 여부를 따지니 김익순은 진정으로 항복함을 호소하고 애원하였다. 사용은 술잔을 내려 그를 군관에 차임하였다....(중략)...뒤에 김익순은 의금부에서 능지처참을 당하였다.⁽⁷⁴⁾

조문형은 몰래 천막 안으로 들어가 김창시의 칼을 빼어 그의 머리를 베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뒤에 선천 읍내로 가서 김창시의 머리를 관군에게 바치려다가 공교롭게 김익순을 만나 천냥에 그것을 팔았다. 김익순은 김창시의 머리를 들고 정주 관군 진영으로 가서 자기 손으로 창시의 머리를 베어 왔노라 하고, 그 공으로 숙려받기를 빌었다. 얼마 뒤 사실이 드러나서 김익순과 조문형은 함께 주살되었다.⁽⁷⁵⁾

김익순은 세록(世祿)의 신하로 적란이 일어나자 이를 적극 막을 생각은 없이 지레 겁먹고 도피하였고, 적의 위협에 쉽게 굴복하여 항복하고 저들의 군관에 차임되었다. 나중에는 남의 공을 돈으로 사서 거짓 증거를 삼아 숙려받기를 꾀하였다가 탄로되어 죽었다. 사대부로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자취를 남겼던 인물이라 하겠다. 다른 이본에서는 김익순을 사정없이 지탄하고 비난하고 있다. 즉,

(71) cf. 「洪景來實記」, p. 20.

(72) 「定州歌」, p. 154.

(73) 「定州勝戰曲」, p. 624.

(74) 傳, p. 374f.

(75) 傳, p. 379.

선천을 칠새 먼저 적서를 보내고…(중략)…군사를 제촉하여 나아가니 선천부사 김익순이 적세를 두려 진작 항복하니 사용이 인신 병부를 앓고…(중략)…이 때 선천부사 김익순이 적괴 김창시의 머리를 배어 대진에 바치니 순무중군이 익순을 잡아들여 도적에게 항복한 절차를 물은대 익순이 왈 도적이 꺾박함을 입어 거짓 항복하였나이다. 순무중군이 크게 꾸짖어 왈, 네 세록지신으로 죽기를 아껴 도적에게 항복하여 살기를 어찌 도모하리오. 즉시 익순을 압령하여 경사로 보내니라. <신미록>⁽⁷⁶⁾

각설 김소용과 리제초와 김창시 등이…(중략)…군사를 거느려 나아가 선천을 칠새 먼저 격문을 보내고…(중략)…군사를 저촉하야 험하니 병세 자못 웅장하고 호령이 엄숙홀지라 선천부사 김익순이 그 격서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느중 또한 터덜홀 제척이 업서 이에 항서를 보내어 항복하니 그 항서에 군사를 니키힌 이 날에(興師是日) 빙성이 편안케 되다(生民奠安) 하느 구절이 있더라. 소용이 선천에 드려가 익순의 인신과 병부를 앓고 익순으로 군관을 삼으며…(중략)…솔흐다 김익순과 리장겸은 당당한 중영세족으로 국은을 후히 넓었고 하물며 슈토지신으로 탄시를 당하야 터덜에게 무릎을 꿇어 살기를 도모하니 더 가산군슈 정시와 박천군슈 임성고에게 비하면 엇지 붓그럽지 아니며 또한 통천 장교 1 붓그럽지 아니라…(중략)…전 선천부사 김익순이 덕군의 부원슈 겸 참모관 김창시의 머리 버힌 것을 사가지고 대진 앞해 니르려 터덜하거늘 순무중군이 크게 군위를 배풀고 잡아드려 사문하니 익순이 그 투항함을 즈복하고 그 항서를 외오더라<홍경래 실기>⁽⁷⁷⁾

선천부사 철산부사/만번이나 죽이고져/양반의 주식으로/염치도 면허업다/오리정 연후하고/등군 투자 어이업다/좌우의 삼반하인/붓그럽도 아니런가/김창시 목인지를/뉘라셔 비허관디/등간에 횡탈하야/계공을 삼으랴노<정주가>⁽⁷⁸⁾

장정 익순 경형 등은/빅옥땅군 어인일고/닉조혼업 생각하니/츄락가정 내죄로다<정주승전가>⁽⁷⁹⁾

위에서 <신미록>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본들은 작자 자신의 말로 김익순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신미록>도 작자 자신의 말로는 아니하였으나, 작중 인물의 말을 빌어 아프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에 비하면 본 전은 꽤 냉정한 객관적 서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요컨대 본 전은 봉건적 관료층의 두 가지 유형을 객관화시켜 제시해 주었다고 하겠다.

가치관의 대결: 본 전은 다른 이본과는 달리 홍경래의 거사가 갖는 사상적 의의를 관심있게 다루고 있다. 다른 이본은 홍경래 사건을 단순히 왕사와 역도간의 역학적 관계로만 파악하고, 그것의 현상적인 추이를 재현하는 데 그친 감이 있다. 그리고 작자는 여전히 왕권주의에 대한 맹목적 추종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 태반이었다. 본 전의 작자는 홍경래의 거사를 사회가치화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의 사회적 각성의 내용과 사회의식의 본질을 극명하게 해명해 보였다. 그 전형적인 형상화를 홍경래와 한호운(韓浩運)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에서 볼 수 있다. 즉,

한호운은 정주성이 좀처럼 함락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분을 이기지 못하여 조정에 글을

(76) 「辛未錄」, p. 449, 463

(77) 「洪景來實記」, pp. 29~31-61

(78) 「定州歌」, p. 160

(79) 「定州勝戰曲」, p. 625

올려 단신 경래를 찾아가 설득하여 귀순케 하겠노라 하니, 조정에서 그의 뜻을 장하게 여겨 허락하였다. …(중략)…경래는 본래 한호운의 명성을 들었던 터이라 좌우에게 명하여 결박을 풀게 하고 위로 맞아 자리에 앉히고 존엄히 인사했다. ‘오래 전부터 존형의 대명을 우리러 보았더니 오늘 다행히 대면하게 되었군요. 서로 만남이 어찌 이렇듯 늦었는지요. 형은 무슨 긴한 일로 위험을 무릅쓰고 예까지 오셨소이까?’ 한호운은 큰 소리로 꾸짖었다. ‘너를 깨우치려고 왔다.’ 경래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존형이 잘못 아셨소. 형은 필시 우리의 의리와 우리의 마음을 모를 것이요.’ 한호운은 소리 높여 꾸짖기를 ‘너같은 역적놈이 무슨 의리가 있다는 것이냐?’ 경래는 그래도 성을 내지 않고 말했다. ‘형은 단지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모르는구려. 내가 역적인 것만 알고 내가 애국 애민하는 사람인 줄은 모르는군요. 형이 나를 역적이라 하는 것은 선입의 편견에 지나지 않소이다. 나의 말을 자세히 들어 보시구려.’ 호운은 또 크게 꾸짖었다. ‘너 역시 임금의 덕화 가운데 살아가면서 4백년이나 누려온 은혜를 생각지 않고 감히 반역할 마음이 생겨 무고한 백성을 몰아 왕사에 항거하다니 너의 커다란 죄는 반드시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래도 이에 소리 높여 꾸짖었다. ‘쥬새끼같은 녀석이 여기가 어디라고 무례히 방자하게 이러느냐? 네가 비록 과거에 급제했다지만 무슨 벼슬자리를 얻었느냐? 너 역시 평안도 출신인데 무슨 나라의 은혜, 임금의 덕화가 대단히 컸단 말이나? 무릇 나라 안의 백성은 마땅히 함께 즐거움을 누려야 하거늘 지금 관서 서북인에 대해 나라에서 대우하는 바가 어떠하냐? 흉년을 만나 기근이 들어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일찌기 조정에서 구휼을 베풀 적이 있더냐? 구휼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술 더 떠 탐관을 보내어 가렴주구케 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 가겠느냐? 서북인은 아무리 탁월한 재능과 뛰어난 학문이 있어도 이 세상에 어디 쓰일 곳이 있더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니 너는 마음을 고쳐 먹도록 하여라.’ 한호운은 그래도 또 크게 꾸짖었다. ‘너같은 짐승 무리에게 어떻게 사리를 분변하여 가르치겠느냐?’ 이 때 좌우에서 한호운을 죽이려 하자 경래는 껄껄 웃으며 ‘가 없고 불쌍하다.’ 하고 제지하였다.⁽⁸⁰⁾

위의 홍과 한의 논쟁을 통하여 볼 때 한은 비록 의기는 있을지 모르나 논리는 매우 옹색하고 궁하다. 완고한 왕정주의자의 인상이 짙다. 명쾌한 해명은 없이 다만 왕권에의 순종만을 소리 높여 부르짖을 뿐이다. 이에 비하면 홍은 논리도 정연하고, 명분도 뚜렷하다. 사회혁명가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 홍이 당대 왕정의 폐정을 날날이 지적하였는 데도 한은 이에 대하여는 한 마디 반론이 없이 다만 왕권에 도전하는 행위의 부당성만 되풀이 되풀이 되풀이 하였다.

<신미록>은 이 대목을 전혀 한 중심으로 형상화하였다. 즉,

한주사가 경래를 보고 대질 왈 무도한 도적아, 국은이 망극함을 모르고 외람히 천의를 거스르니 네 머리를 베어 팔도에 회시하리니 네 마음에 부끄럼거든 네 스스로 머리를 베어 멸족지화를 면하라. 경

(80) 韓浩運…(中略)…時聞定州不下 念不自勝 上書朝廷 請單身往諭使景來歸順 朝廷壯其志 而許之…(中略)…浩運名聲…(中略)…命左右解其縛 延上賜坐…浩運大聲曰 欲曉諭汝而來耳 景來微笑曰 尊兄差矣 兄必不知吾之義理吾之心事也 浩運大聲大叱曰 如汝逆賊漢 有何義理耶 景來猶不怒而溫言曰 兄但知其一 不知其二 只知我之爲逆賊 而不知我之爲愛國人也 兄所謂逆賊者 不過是先入之偏見矣 請詳聽吾言也 浩運大叱曰 汝亦生於聖化中 不思四百年休養之恩 敢生逆心 驅無辜之民 抗拒王師 汝罪莫大 必不免天誅矣 景來於是亦高聲叱之曰 鼠輩豎子 此地何地 無禮放恣乃爾耶 汝雖登科有何官守之責耶 汝亦生以平安道所生 有何國恩君德之鴻大耶 凡國內之百姓 當共享樂 今關西西北人 國家之所以待之者何如耶 凶年飢饉無食 而朝廷曾有顧恤之舉耶 不惟不恤 加之以貪官苛歛 求民何以料生耶 西北人雖有通天之才 絕人之學 有何所用於此世耶 吾憐而赦之 汝其改心也 浩運又大叱曰 如汝禽獸輩 有何辨說耶 時左右欲殺之 景來笑曰 可惜可憐也 因禁止 <傳, p. 318f.>

래 왁 너를 마땅히 벨 것이로되 동학지의 있는고로 차마 배지 아니하니 나를 좇아 부귀를 함께 함이 어떠하뇨. 한주사가 더욱 분노하여 왁 임금의 신자가 되어 어찌 개같은 도적으로 좌석인들 함께 하리요. 경래 대로하여 원문 밖에 내어 배니 어찌 가련치 않으리요. 자고로 충신열사가 절의에 죽었거니와 한주사의 충절은 고인에 지지 않은지라.⁽⁸¹⁾

여기서는 한만이 일방적으로 부각되어 있고, 위에서 본 홍의 이로정연한 변절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요컨대, 본 전은 홍과 한의 쟁설을 통해 홍의 혁명의 당위와 그의 신념을 다시 한 번 확인케 하고 있다. 그러면서 왕권주의자의 논리가 혁명의 논리 앞에 매우 무력하고 옹색함을 드러냈다.

IV. 결 언

소설이 다루는 현실이 아무리 역사적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소설은 다만 단순히 역사 기술을 되풀이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작가는 역사적 사실의 문학화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작가 나름의 관점을 갖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작품 소재로서 재해석하고 그 나름의 주제를 설정하여 또 하나의 <역사적 현실>을 재구성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문학화라 하겠다. 이로써 역사 기술과는 다른 차원에서 역사적 사건에 접근하여 그 <진실>을 전달할 수 있다. 홍경래에 관한 세 가지 소설 작품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문학 형상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가의식의 차이 때문에 전혀 별개의 주제, 별개의 인물 성격 창조를 하고 있다.

<신미록>은 순전히 관군의 편에 서서 신미란의 성격을 이해하고 썼기 때문에 홍경래는 시종 왕권에 반역한 적당으로 밖에는 형상화되지 않았다.

<홍경래 실기>는 작자 자신 신미란의 민중적 성격을 이해하고 홍경래의 영웅화를 의도하고 작품화한 것이나, 그 의도에도 불구하고, 작품화 과정에서 관군 편에 시점을 설정한 때문에 작자의 의도에서 벗어난 작품이 되어 버렸다.

<홍경래전>은 시종일관 홍경래와 민중(서북민)의 편에 서서 문제를 발견하고 사건을 서술해 나갔던 관계로 신미란의 본질을 위의 어느 작품보다도 심도있게 파악하고 다루었다. 다른 작품들이 본의였든 본의가 아니었든 한결같이 홍경래의 혁명군을 왕권에 도전한 반역의 적당으로 밖에 다루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본 전에서는 신미란을 반봉건의 사회혁명운동으로, 홍경래를 혁명적 영웅으로 긍정적인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다른 작품들이 주정적인 서술을 탈피못하였음에 대하여 본 전은 시종 냉정한 객관적 서술을 통해 사실성(寫實性)을 획득했던 관계로 나름대로의 호소력을 지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81) 「辛未錄」, p. 481

《洪景來》小說對比表

작품 作品	작자 作者	판種 版種	用語 用語	年代 年代	‘亂’의 성격 性格	洪軍	官軍	洪의 出身	거사동기 起事動機	鄭著 殉死	任聖舉	韓浩運	李濟初 의 죽음 의 죽음	洪景來 의 죽음 의 죽음	作者意圖 作者意圖
辛未錄	?	京板	國文	辛酉 二月日	‘亂’의 성격 荒野愚民 이聖明하 신德澤을 알지 못하 고狼藉하 고天憲를거 스립 (反逆)	無綱望 盜賊 敵兵 敵黨 敵將 敵魁	軍士 軍		檄	形象化	形象化	忠義의 人士로 敘述	敵將의 生捕와 斬首	槍死→ 首級鑑 送	官側에서 洪과 그의 거사를 大 逆으로 否定的 으로 다룸.
洪景來 實記	南岳 主人	新鉛 字版	國文	1917	大義와公 理를 밝히 려고 봉기 하였으나 時勢를 못 안나서絶 (序) (革命)	洪軍 百代英雄 將軍 (홍경래)	官軍	非常한 人物으로 形象化 (非常人)	기회 불 균형· 外戚弄 權·賄 賂橫行 ·收奪 (肯定)	形象化	形象化	忠義의 人士로 敘述	實力이 는 盜 賊의 投降과 斬首	逃亡 不捕	作者의 의도가 形象化되지 못 함. 英雄으로서 의 洪의 形象化 미약. 官軍위주 의 전투소개 치 중.
洪景來 傳	?	筆寫本	漢文	?	國政腐敗 紀綱의 폐 黨爭. 戚 里宗단. 賄賂公行 官吏登用 의門閥主 義. 地方 差別等의 匡正 (革命)	軍	官軍 殘酷의 相의 形象化	非常한 英雄의 人物으로 形象化 (傳奇 的要素 는 배 제)	科學 落榜 形象化	간결하게 記述	간결하게 記述하되 洪을 존중 하는 문로 자함	勇猛無雙 한英雄이 勢不利하여 投降의 官軍의 背信殺 害으로 斬首의 野蠻性 格動搖 (莊嚴化)	逃亡하다 가中丸하 여 官軍 의 亂刀 斬으로 殺害. 遠 方으로逃 避한다 (餘韻) (戰死)	洪을 革命의 英雄으로, 辛未亂 을 義勇으로 舉事 의 當爲性을 인 정. 洪軍위주로 전투를 形象化 함.	